

# 정부 SOC예산... 민자사업 위축 우려

### 사업 활성화 업계 건의 '목살' ... 건설업계 "법령 전반 개정, 민간과 협의 통한 공감대 형성"

정부가 SOC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민간투자사업마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수립·고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에 지정토록 했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사업

발굴 및 사업성검토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적격성 조사 절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내용을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가한다.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이다.

이는 이미 적격성조사에 포함된 예비타당성 평가를 별도로 절차를 추진할 경우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늘려 오히려 사업추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현행 민투법에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하위규정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도입은 법체계에

도 위배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민투법에서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해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약 민간투자사업에 예비타당성제도가 도입되면 수년간 준비한 사업비밀이 공개될 뿐 아니라 민투법 규정과도 상충돼 법 적용상 혼란 초래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침체돼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는 공공연장 간접비 지급근거 마련, 자금제조달 공유이익 산정방식 개선 등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민간업계 건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 개정안 대부분이 민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은 기본계획의 일부 조항 신설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관련 법령 전반의 개정.검토와 정부,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은 기본계획의 일부 조항 신설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관련 법령 전반의 개정.검토와 정부,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인천-삿포로, 정기편 취항

### 이스타항공, 6개 노선 · 주 7회 매일 운항 시작

이스타항공은 7월 1일부터 인천-삿포로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해 주 7회 매일 운항을 시작한다.

이번 삿포로 정기편 취항으로 이스타항공은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간사이), 인천-오기나와, 인천-후쿠오카, 부산-오사카(간사이)까지 총 6개 일본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눈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삿포로는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도시로 특히 7월에는 후라노시에서 열리는 라벤더 축제와 오도리공원에서 열리는 맥주축제가 유명하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삿포로 정기편 취항을 기념해 20일 오후 2시부

터 30일까지 열흘간 해당 노선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가항공권의 탑승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편도총액임금 기준으로 최저가 7만9,200원부터 제공된다.

또한 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istarjet)에서는 정기편 취항 축하 댓글 이벤트를 벌인다.

축하 댓글과 게시물 공유를 하고 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istarjet.com)와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 쌈채소 세척시, 물 받아 씻어야 농약 제거 효과적

### 물은 1/4, 시간은 1/3 수준 절약 효과

쌈채소 세척 시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 물 받아 3회 정도 씻어서 먹을 때 물도 절약하고 잔류농약도 잘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생채로 먹는 상추, 숙갓, 깻잎 등 쌈채소를 씻을 때 시간도 아끼고 농약 제거 효과도 좋은 올바른 세척 방법을 제시했다.

가정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 흐르는 물에 직접 씻는 방법과 물 받아 씻는 방법을 비교하여 업체류

에 묻어 있는 농약성분의 제거율, 물 소모량 및 소요시간을 조사했다.

흐르는 물에 씻는 방법은 수돗물을 일정한 유속(11/10초)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세척했고, 물 받아 씻는 방법은 수돗물 41를 수조에 받아 손으로 흔들어 세척했다.

상추나 숙갓을 1회 세척할 때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경우 수돗물 사용량과 소요시간은 각각 181.3분이 소요됐으나, 물 받아 세척

하는 경우에는 각각 41.1분이 소요됐다.

이와 같이 물 받아 세척하는 방법이 흐르는 물에 씻는 방법보다 물은 1/4, 시간은 1/3 수준으로 절약됐다.

물 받아 세척하는 것을 3회로 늘렸을 때 잔류농약 제거율은 흐르는 물에 1회 씻는 방법보다 최대 2배까지 높아지고 물소비량도 2/3 수준에 불과했다.

물 받아 씻는 방법의 경우 첫 번째 세척 시 제거효율이 가장 높아 평균 31%, 두 번째 세척은 5%, 세 번째 세척에서는 4%가 제거되어 첫 번째 세척 시 대부분의 농약

(농약의 80%)이 제거됐다.

또한, 가정에서 세척 시 활용하는 소금물, 녹차액과 수돗물을 이용한 세척방법의 잔류농약 제거율을 비교했다.

2% 소금물, 4% 소금물, 1% 녹차액, 수돗물을 각각 41씩 수조에 담아 들것임을 세척했을 때 농약 제거율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농촌진흥청 권혜영 농업연구사는 "쌈채소를 씻을 때는 수돗물을 받아 다른 첨가제를 넣지 않고 3회 정도 씻는 방법이 물도 절약하고 잔류농약도 잘 제거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농어촌공,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연회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분부와 기술안전품질원은 20일 정읍시 내장저수지에서 우기철 저수지의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위험성 제고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에는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전북도와 시,군 담당자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시연회에서 공사는 점검분야를 세 가지로 나누고 시설물의 누수, 균열,

침하 등 점검, 구조물·철근 등의 잔존수명, 강도 안전도 측정, 제방의 누수 및 누수취약 구간 점검 등을 실시했다.

김준재 전북분부장은 "기후변화와 지진 등으로 재해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시설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시연회를 통해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국토정보공사,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 성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립발레단과 함께 국민행복을 위해 펼친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가 20일 충남 공주시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는 지난 5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6일 경남 의령군, 10일 전남 여수시, 19일 완주군을 거쳐 충남 공주시(20일)에서 피날레를 장식했다. /인재용 기자

고품격의 난이도 높은 무료 공연으로 많은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는 '뽕이호테', '탱고' 등 다양한 유명 발레작품을 하이 라이트 갈라 쇼로 제작돼 무대에 올려졌다. 한편, 공사와 국립발레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37개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윤리 서약식 개최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20일 본부 교육장에서 전북특구사업 연구윤리서약식을 개최했다.

'기술이전사업화사업' 수행기관들이 참석한 이날 서약식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진실성 확보와 연구의 객관성 및 정확성 유지, 연구부정행위 금지, 사업비 등 연구자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 등 연구윤리의식 고취 및 연구성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약속했다.

전북특구 기술이전사업화사업에는 지난해 18개 과제 40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45.7% 증가

한 60억원 규모로 26개 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특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포함된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기술도 이번 신규 기술이전사업화사업 과제에 선정돼 사업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박은일 본부장은 "역량있는 전북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연구윤리자킴이로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한은 전북, 삼례동초 학생·교사 초청 견학행사 실시

한국은행 전북분부는 20일 완주군 삼례읍 소재 삼례동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초청해 견학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전북도교육청과 체결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진로직업 체험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등 경제교육, 전북본부 영업장 및 시설 견학, '화폐속의 패션' 전시관 관람, 남부시장 장보기 체험학습, 전문문화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js.or.kr \*전자우편 : jvjs@hanmail.net